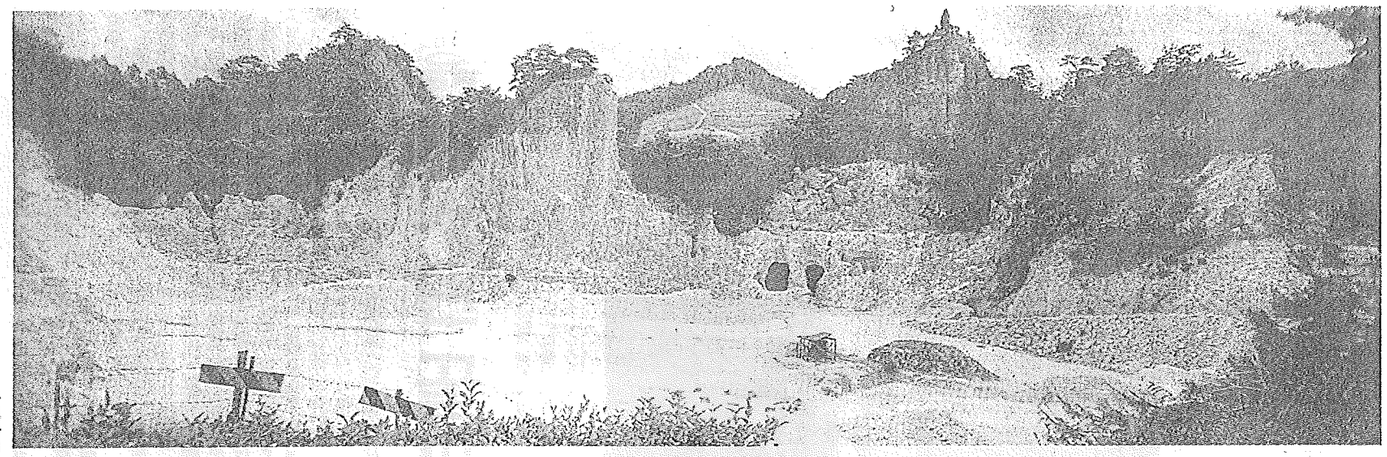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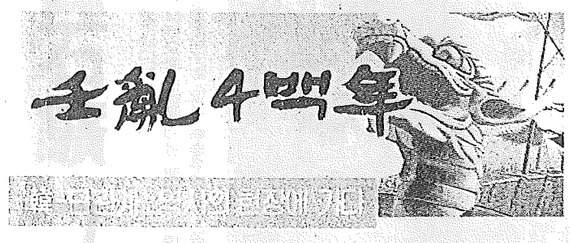
有田으로 날아간 陶工 李參平



◇李參平이 발견한 磁石鑛 아리다의 參平이 발견한 이자석광은 3백수십년간을 채굴하는 동안 몇개의 봉우리가 거대한 구덩이로 변했다. 일본 자기예술의 발전을 가능케한 원천이다.

恨삭이며 지핀 불 「陶祖신화」 낳고…

壬亂 4백年



흙캐내던 골짜기 磁石鑛 그대로

언덕엔 「陶山神社」

〈25〉

〈題字: 松隱 沈禹植〉

일진·정유왜란은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렸다. 조선白磁의 청하한 광채와 고운線을 탐낸 왜장들이 눈에 불을켜고 도공들을 낚아해 왔을 이르는 말이다.

그럴게 불쌍한 수많은 도공들 가운데 公州사람 李參平이 일본땅에서 처음 磁器를 구워냈던 아리다(有田)란 마을은 일본도자 대표하는 陶鄕으로 유명하다.

사쓰마야키(薩摩燒) 가라쓰야키(唐津燒) 야시로야키(八代燒) 다카도라 쓰고 팔월속에 본명을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구가 이런 이름을 갖게된 충청도 錦江출신이기때문이다. 보다는 金을 좋아한 탓인지 였던지는 분명하지않다. 그러나 들은 분명치않은 기록을 근거로 조의 고향을 충남公州의 추정, 지난해 10월 그곳에 를 세웠다. 그의 14대손인 에 쇼헤이(金江省平·30)가 8월서울에서 전시회를 가진 峰里를 찾아갔던 사실로 아리다 동안 채굴된 거대한 구덩이로 남아 있다. 구덩이의 직경은 1백㎞가 넘어보였고 깊이는 수십㎞는 될지 했다. 1917년 陶祖李氏顯德會가 세운 李參平발견지磁礦地」라는 비석옆에 도공들의 碑도서있다. 옛날 가마의 벽면을 잘라낸 벽돌로 만든 합토옹덕비이다.

李參平은 아리다중심부의 북쪽산협, 그가 최초로 만든 가마(天狗谷窯) 곁의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 5백여평쯤 돼보이는 묘지 한가운데, 언제나 싱싱한 꽃이 바쳐

발견된것은 산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줍은 산골짜기를 따라 1字 모양으로 형성된 시가지를 한참 거슬러 오르면 가미아리다(上有田)驛. 이 작은 역 오른편에 나지한 산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李參平의 업적을 기리는 陶山神社이다.

「陶祖의 언덕」이란 화강암 계단을 10여분 오르면 산 정상에 「陶祖

◇사적지로 지정된 묘지 아리다市내 공동묘지에 있는 李參平의 묘. 성은 「金江」으로 바꾸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표기됐다.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됐다는 팻말이 서있고 비석아래는 실않은 꽃들이 꽂혀있어 직금도 참배객이 많음을 알수있다.

李參平이 발견한 자석광은 3백수십년간을 채굴하는 동안 몇개의 봉우리가 거대한 구덩이로 변했다. 일본 자기예술의 발전을 가능케한 원천이다.

리야키(高取燒)하기야키(萩燒)등 九州일대의 유명한 도자기브랜드는 모두가 그때 끌려온 조선도공들이 원조들이지만, 자기를 만들었는 곳뿐이었기에 으뜸가는 도공이 된 것이다.

가라쓰(唐津)에서 남쪽으로 40여㎞를 고속버스로 달리면 일구 1만 5천여명의 도자기고을 아리다이다. 馬耳山을 닮은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들이 평퍼짐한 구릉의 연속인 九州의 산세완는 달른 모양새이다. 자기의 원료가 되는 磁石鑛이 있는 곳이 그의 무덤이다.

「史跡初代金江三兵衛(李參平)墓碑」란 팻말이 아니라면 비바람에 마멸된 반토막짜리 비석의 주인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 팻말의 옆면에는 1967년3월20일 이묘지가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적혀있다.

그의 이름이 「金江」으로 적혀있는 것은 일본에 끌려온뒤 나베시마(鍋島) 藩이 그렇게 개명해준 탓이다. 이 무덤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50년전에 세운 송덕비에는 李參平으로 표기한데 비해 「金江」이라는 뿌리찾는 일단락된 국내 미술사가들에 의하면 李參平은 廣州에 일하다 납치된 영도자기공장에서 일하다 납치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연위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날씨한 왜장은 현재의 나베시마 賀縣지방의 영주였던 나베시마 島直茂였고, 시기는 1598년 596년께로 추정되고 있다. 나베시마의 감시하에서 주 활는기를 굽고있던 그가 자기를 발견한것은 끌려온지 20여년 지있는 곳이 그의 무덤이다.

「史跡初代金江三兵衛(李參平)墓碑」가 우뚝 서있다.

1616년 李參平이 아리다의 이즈미야마(泉山)에서 磁石鑛을 발견하여 일본 최초로 자기를 만들어냈다는것과 함께 「1917년 아리다도자기창업 3백년을 기념해서 陶祖 李參平碑가 건립되었고 매년 5월4일이면 이곳에서 陶祖祭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이서 있다. 흰 陶板위에 한글 일어 영어 3개국어로 써넣었다.

驛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李參平이 발견한 자석광이 4백년 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는가.

「일본조의 임진왜란 상처」를 조사하고 있던 때니까, 지금부터 30여년전의 일이다. 어떤 문헌에 「逆修國朝鮮工政大夫之孫金廣之立石, 寬永六年己巳道淸禪定門, 妻同國金氏妙淸禪定尼八月日」라고 새긴碑가 규슈 사가(佐賀)시 교외에 있고, 道淸의 묘는 되장조(唐人町)의 園鏡寺에 있다는 것이었다.

唐人町은 丁酉再亂때 나베시마(鍋島直茂)가 한국에서 連行한 사람들 1백8명이 집단 거주한 곳이며 寬永六年은 1629년이다. 국교가 정상화되어 22년이지났고 5년전에는 제3차 朝鮮通信使가 일본을 왔다 갔는데 어째서 그들이 연행당했으며 면질후 20여년간 기차를 타고 이시기 문제에 대한 공부를 시 사가驛에 내려 園鏡寺를 찾아갔 었다. 서일본 각지에 唐人町이란 지명이 수다하다. 福岡市와 佐賀, 熊本, 鹿兒島, 高知, 德島의 각 시에 있고, 唐津과 小倉, 廣島, 岡山, 姬路, 宇和島에도 연행한 사람들의 집단촌이 있었다. 연행당한 한국인 마을이 있었다. 연행당한 아가지 못했을까. 연행의 원인은 壬辰년, 침략군을 살륙시킨후 빈 배로 돌아가다 풍파로 침몰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데 있다. 그래서 丁酉再亂때는 남녀 노소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연행해 배에 싣고 돌아갔다. 그래서 武將들의 領地에 집단부락 唐人町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 기술수준은 우리쪽이 훨씬 높았다. 예컨대 陶工들 손으로 서일본 각지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된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象嵌은 「肥後(熊本) 象嵌」 「加賀(金澤) 象嵌」이 유명하고 가고시마(鹿兒島)로 연행당한 鄭宗官은 樟腦제조법을 고안했다. 樟腦는 모기룡의 防虫劑로 열기한 상인을 통해 수출 상품의 제1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李參平이 전한 磁器기술로 이룩된 「伊萬里燒」의 명성은 (福岡藩)의 경이었다. 1624년 이노시마(鹽島)藩이 국가적 지시한다. 그러나 자기 번(藩)이 해 그들의 존재 이다.

통신사의 통역 도부가와만부(德川幕府)의 국인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1607년의 제4차 통신사까지 약 7천5백명이 귀국했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道淸부부와 같이 이국땅 일본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어째서 그들이 연행당했며 43)의 제4차 통신사까지 약 7천5백명이 귀국했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道淸부부와 같이 이국땅 일본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어째서 그들이 연행당했며 작해서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일본을 풀게 되었던 것이다.

唐人町

李進熙

【在日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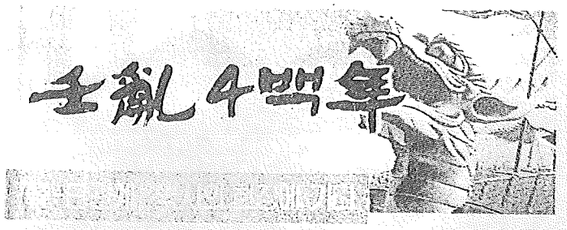
丁酉再亂때 붙잡혀온 朝鮮人들의 집단村

西日本 곳곳에 형성…산업·文化발전

다. 승려가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지요?」 하면서 道淸夫婦 묘로 안내해 준것이 지금도 기억 이다.

恨삭이며 지핀 불 「陶祖신화」 낳고…

工 李參平



〈題字: 松隱 沈禹植〉

〈25〉

임진·정유왜란은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렀다. 조선白磁의 청아한 광채와 고운樣을 탐낸 왜장들이 눈에 불을켜고 도공들을 낚아해 왔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붙잡혀온 수많은 도공들 가운데 公州사람 李參平이 일본땅에서 처음 磁器를 구워냈던 아리다(有田)란 마을은 일본을 대표하는 陶鄕으로 유명하다.

사쓰마야키(薩摩燒) 가라쓰야키(唐津燒) 야시로야키(八代燒) 다카도리야키(高取燒) 하기야키(萩燒)등 九州일대의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는 모두가 그때 끌려온 조선도공들이 원조들이지만, 자기를 만드는 이 곳뿐이었기에 으뜸가는 도향이 된 것이다.

가라쓰(唐津)에서 남북으로 40여㎞를 고속버스로 달리면 인구 1만 5천여명의 도자기고을 아리다이다. 馬耳山을 닮은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들이 펼쳐진한 구릉의 연속인 九州의 산세와는 달리 모양새이다. 자기의 원료가 되는 磁石鑛이 있었던 곳이 그의 무덤이다.

「史跡初代金江三兵衛(李參平) 墓碑」란 팻말이 아니라면 비바람에 마멸된 반토막짜리 비석의 주인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 팻말의 옆면에는 1967년3월20일 이묘지가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적혀있다.

그의 이름이 「金江」으로 적혀있는 것은 일본에 끌려온뒤 나베시마(鍋島) 藩이 그럴게 개명해준 탓이다. 이 무덤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50년전에 세운 송덕비에는 李參平으로 표기한데 비해 「金江」이 발견된것은 산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언덕엔 「陶山神社」

좁은 산골짜기를 따라 1字 모양으로 형성된 시가지를 한참 거슬러 오르면 가미아리다(上有田)驛. 이 작은 역 오른편에 낡은 삯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李參平의 업적을 기리는 陶山神社이다.

「陶祖의 언덕」이란 화강암 계단을 10여분 오르면 산 정상에 「陶祖李參平碑」가 우뚝 서있다.

1616년 李參平이 아리다의 이즈미야마(泉山)에서 磁石鑛을 발견하여 일본 최초로 자기를 만들어냈다는것과 함께 『1917년 아리다 도자기창업 3백년을 기념해서 陶祖 李參平碑가 건립되었고 매년 5월4일이면 이곳에서 陶祖祭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서있다. 흰 陶板위에 한글을 일어 영어 3개국어로 써넣었다.

驛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李參平이 발견한 자석광이 4백년전 있는 곳이 그의 무덤이다.

「史跡初代金江三兵衛(李參平) 墓碑」란 팻말이 아니라면 비바람에 마멸된 반토막짜리 비석의 주인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 팻말의 옆면에는 1967년3월20일 이묘지가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적혀있다.

그의 이름이 「金江」으로 적혀있는 것은 일본에 끌려온뒤 나베시마(鍋島) 藩이 그럴게 개명해준 탓이다. 이 무덤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50년전에 세운 송덕비에는 李參平으로 표기한데 비해 「金江」이 발견된것은 산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언덕엔 「陶山神社」

좁은 산골짜기를 따라 1字 모양으로 형성된 시가지를 한참 거슬러 오르면 가미아리다(上有田)驛. 이 작은 역 오른편에 낡은 삯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李參平의 업적을 기리는 陶山神社이다.

「陶祖의 언덕」이란 화강암 계단을 10여분 오르면 산 정상에 「陶祖李參平碑」가 우뚝 서있다.

1616년 李參平이 아리다의 이즈미야마(泉山)에서 磁石鑛을 발견하여 일본 최초로 자기를 만들어냈다는것과 함께 『1917년 아리다 도자기창업 3백년을 기념해서 陶祖 李參平碑가 건립되었고 매년 5월4일이면 이곳에서 陶祖祭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서있다. 흰 陶板위에 한글을 일어 영어 3개국어로 써넣었다.

驛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李參平이 발견한 자석광이 4백년전 있는 곳이 그의 무덤이다.

「史跡初代金江三兵衛(李參平) 墓碑」란 팻말이 아니라면 비바람에 마멸된 반토막짜리 비석의 주인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 팻말의 옆면에는 1967년3월20일 이묘지가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적혀있다.

그의 이름이 「金江」으로 적혀있는 것은 일본에 끌려온뒤 나베시마(鍋島) 藩이 그럴게 개명해준 탓이다. 이 무덤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50년전에 세운 송덕비에는 李參平으로 표기한데 비해 「金江」이 발견된것은 산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언덕엔 「陶山神社」

좁은 산골짜기를 따라 1字 모양으로 형성된 시가지를 한참 거슬러 오르면 가미아리다(上有田)驛. 이 작은 역 오른편에 낡은 삯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李參平의 업적을 기리는 陶山神社이다.

「陶祖의 언덕」이란 화강암 계단을 10여분 오르면 산 정상에 「陶祖

◇사적지로 지정된 묘지 아리다내 골동묘지에 있는 李參平의 묘. 설은 「金江」으로 바뀌었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표기돼있다.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됐다는 팻말이 서있고 비석아래는 시들지 않은 꽃들이 꽂혀있어 짙은 참배객이 많음을 알수있다.

흙캐내던 골짜기 磁石鑛 그대로

墓所팻 말의 이름 「金江」둔갑… 넋마저 포로인듯

달들의 뿌리찾기는일단락된셈이다.

국내 미술사가들에 의하면 鶴峰里출신인 李參平은 廣州에 있던 관영도자기공장에서 일하다 납치당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연대와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낯설한 왜장은 현재의 사가(佐賀)縣지방의 영주였던 나베시마(鍋島直茂)였고, 시기는 1594~1596년께로 추정되고 있다.

나베시마의 감시하에서 주로 생활도기를 굽고있던 그가 자석광을 발견한것은 끌려온지 20여년후인 1616년이었다. 사람이 살지않던 아리다의 泉山에서 보배같은 자석광이 발견되자 나베시마는 그곳에 가마를 열게하고 영지내 곳곳에 흩어져 도기를 굽던 도공들을 이곳에 끌어모았다. 金海에서 잡혀온 宗傳이란 명장의 미망인(閔巖仙)이 데리고있던 수백명의 도공들도 그때 이곳으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10년도 채못된 사이에 아리다에는 40여개의 자기가마가 생겨나 나베시마藩은 한순간 막대한 재화를 거머쥐게 된다.

제조技法 全國전파

기다란 골짜기아래 위 두곳에 검문소를 만들어 외부사람의 출입을 엄하게 통제했다. 자기만드는 기술이 새나가지못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40여개의 가마에서 생산되는 자기들은 북쪽으로 10㎞쯤 떨어진 이마리(伊萬里)로만 실어내 배편으로 나가사키(長崎)港을통해 유럽각국에 수출했다. 이 제품들을 아리다야키라 하지않고 「이마리야키」라고 부른것도 비밀이 유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밀보장은 불가능했다. 50년도 채못되어 아리다의 기술은 구다니(九谷)야키로 흘러갔고, 1800년대초기에는 교토(京都)와 아이즈(會津)지방으로 까지 전파돼 자기제조의 全國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아리다 도자기미술관을 둘러보면 초기의 아리다야키는 고운 선과 여백을 중요시한 조선백자의 모습 그대로임을 한눈에 알수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明과 淸나라의 취향이 도입되고, 뒤에는 일본과 유럽인들의 기호에 맞춘 작품으로 변해버린다.

지금 아리다에서 거래되는 도자기에선 조선백자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집 건너 하나꼴인 도자기가게에 진열돼 있는 작품들은 화려한 색채와 문양만을 강조한 일본적인것을 뿐이다. 세월의 흐름을 더욱 실감케하는 것은 공업도기의 발전이다. 전기 애자(碍子)나 건축용 도기들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도자기 생산업체보다 훨씬많다.

사냥하듯이 조선도공들을 붙잡아가고 가마를 파괴해버려 일찬이후 한국의 도예는 급격한 사양길에 들어섰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도예문화가 꽃을 피웠지만 조선백자만이 가질수있었던 기품있는 작품을 내놓지는 못했다. 향기높은 문화란 그에 걸맞는 취향과 토양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은 아리다 방문이었다.

【有田=文昌宰특파원】

불영온 朝鮮人들의 집단村

西日本 곳곳에 형성…산업·文化발전 기여

었는가.

며칠후 20여명의 기차를 타고 시 사가驛에 내려 園鏡寺를 찾아 갔에 남아있다.

서일본 각지에 唐人町이란 지명이 수다하다. 福岡市와 佐賀, 熊本, 鹿兒島, 高知, 德島의 각 시에 있고, 唐津과 小倉, 廣島, 岡山, 姬路, 宇和島에도 연행한 한국인 마을이 있었다. 연행당한 한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3만은 넘었다고 추측된다.

그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초기 통신사의 일무의 하나였고, 仁祖21년(1643)의 제4차 통신사까지 약 7천5백명이 귀국했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道淸부부와 같이 이국땅 일본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어째서 그들이 연행당했으며 국교 정상화 뒤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연행의 원인은 壬辰년, 침략군을 상륙시킨후 빈배로 돌아가다 풍파로 침몰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데 있다. 그래서 丁酉再亂때는 남녀 노소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연행해 배에 실고 돌아갔다. 그래서 武將들의 領地에 집단부락 唐人町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 기술수준은 우리쪽이 훨씬 높았다. 예컨대 陶工들을 송두로 서일본 각지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된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象嵌은 「肥後(熊本) 象嵌」 「加賀(金澤) 象嵌」이 유명하고 가고시마(鹿兒島)로 연행당한 鄭宗官은 樟腦제조법을 고안했다. 樟腦는 모직물의 防虫劑로 얼마후 나가사키(長崎)의 화란상인을 통해 수출 상품의 제1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李參平이 전국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副使 이룩된 「伊萬里 姜弘重의 『東槎錄』에는 그 여인의 말을 이렇게 적고있다.

「被擄人與我同在一處者, 成一村落, 皆思歸而不得」

그 여인이 말하는 「成一村落」은 지금도 지명으로 남아있는 福岡城옆의 曹人町이었다.

고국은 잊을수 없는 법이다. 18세기후반, 鹿兒島縣의 苗代川部落을 발굴한 橘南谿은 그때 이야기를 『西遊記』라는 책에 적었는데, 이 마을은 1598년에 연행당한 남녀 43명으로 이루어져 2백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옷차림과 풍속을 지키고 있었고 申倖也은 「故鄕이란 잊을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할린 동포 문제가 심각에 나올때마다 필자는 唐人町 사람들의 비극을 상기하게 된다.